



## 발 간 사



반갑습니다. (사)일두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윤수입니다.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감에 따라 일두기념사업회의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코로나라는 복병을 극복하고 제법 다채롭고 풍성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사업을 되새겨보면, 먼저 일두 탄신 572주년을 맞아 6월에는 일두선비문화제를 6년째 개최했습니다. 탄신 제례와 특강, 축하 공연, 그리고 다양한 선비문화 체험 부스 운영 뿐만 아니라 제3회 일두시조문학상을 공모하여 일두선생이 접목된 훌륭한 시조문학 작품들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간한 책자인 '일두유적을 찾아서'를 활용하여 진행한 일두유적탐방 프로그램에는 지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통문화교실도 많은 학교의 호응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11월에는 '일두선생의 사상과 유교문화'라는 주제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3일간 아카데미를 개최하였고, 20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일두선생과 관련된 유익한 인문학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일두 정여창 종가의 내력과 문화'라는 책자를 편집·발간하여 일두선생의 선·후대 가계, 선조 묘소, 종택의 주거문화, 불천위제사 및 묘제의 제례문화, 시문 등을 실어서 일두 종가의 내력과 전통, 그리고 문화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하동정씨 문헌공과 후손들이 가문을 이해하고,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무병 다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이사장 김 윤 수 올림

## (사)일두기념사업회 안내

### » 설립 목적과 하는 일

문헌공(文獻公)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선생의 학문과 행의(行誼), 그리고 유업을 기려서 이를 길이 선양하고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회는 일두 선생에 대한 추모행사, 관련자료 발굴 및 보존, 학술연구 및 발표, 선비정신 계승교육, 교육자료 개발 등을 주도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이사 일람(2022. 12월 현재)

- 김윤수(이사장), 정현태(수석이사), 정문상, 김찬수, 김영철, 김태균, 정순경, 정현식, 정의균, 정학상, 정인상, 정순호(총무이사)  
감사: 이점수, 정위철  
고문: 정운상, 정문현, 정천상

### » 연 혁

- ▶ 2003.04.30. 일두기념사업회 설립 등록 초대 정천상 이사장 취임
- ▶ 2004.05.19. 일두선생 서거 500주기 행사 거행
- ▶ 2013.05.18. 2대 정문현 이사장 취임
- ▶ 2016.05.18. 3대 정문상 이사장 취임
- ▶ 2019.05.18. 4대 김윤수 이사장 취임
- ▶ 2019.07.06. 남계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 ▶ 2022년 일두선비문화제 및 각종 사업 전개



초대  
정천상 이사장



2대  
정문현 이사장



3대  
정문상 이사장



4대  
김윤수 이사장



## 2022년 사업 이모저모

### 1. 일두선비문화제

#### 일두 탄신 572주년 일두탄신제 개최

◆ 조선시대 도학사상으로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켜 동방오현, 동국 18현으로 추앙받는 일두 정여창 선생의 탄신 572주년 기념 행사를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축소 운영해왔으나 올해는 3년만에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 ▶ 일시 : 2022년 6월 11일(토) 09:00~13:00
- ▶ 장소 : 남계서원 풍영루 앞 특설무대
- ▶ 주요 내용
  - 탄신제 : 초헌관(함양군의회 의장 황태진)  
아헌관(함양교육장 최경호)  
종헌관(종손 정의균)
  - 제3회 일두시조문학상 수상자 시상
  - 시조 낭송 : 대상 수상자 버리영
  - 특강 : 송인창 교수  
(대전대 명예교수, 전 동양철학회 회장)
  - 축하공연 : 퓨전국악 여울  
(일두 주제가 공연 외 다수)

#### 제3회 일두시조문학상 및 학생작품 공모

◆ 일두 선생과 남계서원을 주제로 한 제3회 일두시조문학상 공모전에 전국의 유명한 시조 시인들이 많이 참가하였고, 훌륭한 작품들을 다수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 ▶ 출품작 수 : 25편
- ▶ 수상자 수 : 15명(대상 1, 금상 2, 은상 4, 동상 8)



#### 남계서원의 달

이영숙(버리영)

청정한 솔향기가 뿌리내린 천년의 숲  
한 폭의 수목화는 만월로 피어난다  
풍영루 걸터 앉은 달 선비의 얼 밝힌다

#### 대상 작품

#### 일두 선생을 읽다

이영숙(버리영)

유구히 흐르는 강 난세의 달 기운다  
오욕의 흰 바람을 우리는 잊었는가  
빼아픈 피의 역사를 붉은 사초를 잊었는가

사화로 닦친 유배 피할 수 없는 운명  
조선의 칼바람은 붓끝을 못 꺾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둔 세상 구한다

한 획을 그으면서 큰 별이 스민 서원  
맑고도 진한 향기 절절히 배어 있는  
당신은 고요히 앉아 온 지천을 달군다

찬 이슬 먹고 자란 한 떨기 매꽃이듯  
흙탕물 밟 담가도 곳곳한 연꽃이듯  
동방의 오현이 되어 천세만세 빛난다

◆ 그리기 및 글짓기 공모대회를 실시하여 많은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우수 작품을 시상하였습니다.

- ▶ 참가학생 수 : 그림 264명, 글짓기 121명, 계 385명
- ▶ 수상자 수 : 그림 123명, 글짓기 53명, 계 186명





## 2. 선비문화 계승교육

### 2022년 일두기념사업회의 다양한 선비교육

(사)일두기념사업회는 우리나라의 유종(儒宗)인 일두 정여창 선생을 비롯하여 함양지역 선현들의 업적과 행실을 바탕으로 오늘날 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선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비문화제 다음날 실시한 일두선생 유적탐방은 가족 단위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찾아가는 전통문화교실'은 희망하는 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일두 선비아카데미'도 지역민을 대상으로 많은 호응속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 일두유적 탐방

- ▶ 6월 12일(일) 09:00~16:00
- ▶ 가족단위 52명 참가
- ▶ 코스 : 일두고택 → 광풍루 → 농월정과 동호정 → 선비길 → 군자정과 거연정 → 남계서원



#### ◆ 2022년 찾아가는 전통문화교실

- ▶ 찾아가는 선비교실 : 5개 초등학교 134명 참가
- ▶ 찾아가는 전통놀이교실 : 9개 초등학교 557명 참가



### 2022년 일두 선비아카데미 운영

- ▶ 장소 : 함양문화원 공연장

	일시	강사명	소속 및 직위	강의 주제
11.7 (월)	09:30~11:30	정재서	이화여대 명예교수	동양신화와 일두
	13:00~15:00	이광호	연세대 명예교수	일두와 경학
11.8 (화)	09:30~11:30	강신웅	경상대 명예교수	인문학과 영남선비정신
	13:00~15:00	박홍식	대구한의대 명예교수	일두와 전통문화
11.9 (수)	09:30~12:00	김윤수 강용수 강창원	일두기념사업회 이사장 경남향토사연구회 이사장 창원시 사료 조사위원	일두와 함양의 한문학 함양의 유교문화와 일두 경남의 불길(봉수)
	13:00~15:00	최원현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우청 정병조의 수필세계

- ▶ 국악공연(11.7~8 11:30~12:00) : 판소리, 가사, 대금, 소금





### 3. 책자 발간

#### ‘일두 정여창 종가의 내력과 문화’ 책자 발간

##### 발간배경

남계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이곳에 주벽으로 모신 문헌공 일두 정여창 선생에 대한 관심과 존 숭하는 마음은 문헌공 후손들은 물론 이곳을 찾고있는 많은 관광객에게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사)일두기념사업회는 일두 선생의 탄생 및 선계와 후계, 선조들의 산소, 그리고 일두 종가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제례문화, 남겨진 시문 등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조상을 숭배하고 전통 제례문화를 계승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두 탄신 57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수대에 걸쳐 이어온 일두종가 종손들의 관직, 남겨진 시문 등을 함께 수록하여 문헌공 후손들이 문중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데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자료집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사진자료를 가급적 많이 사용하였으며, 해마다 시행하는 불천위제사나 묘제의 신위, 축문, 진설, 홀기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책자내용

- ▶ 일두종가의 선, 후대 가계
- ▶ 선조의 묘소 위치 및 사진(3세조~14세조)
- ▶ 종택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
- ▶ 불천위 제사 및 묘제 : 진설, 신위, 축문, 홀기 등
- ▶ 일두종가의 시문(종손 및 형제 중심)
- ▶ 편집주관 : 정순호



#### 秋晚(추만)

黃花含露重(황화함로중)  
赤葉受風飛(적엽수풍비)  
景物佳如此(경물가여차)  
何須漫自悲(하수만자비)

春睡堂集 卷之一

#### 늦은 가을에

노오란 국화꽃은 이슬을 흠뻑 머금었고  
붉은 잎사귀는 바람 맞아 날리는구나  
경물(景物)이 이처럼 아름다우니  
어찌 부질없이 스스로 슬퍼하랴

춘수당집 권지일



## 4. 제3회 일두시조문학상 수상작품



대상

이영숙(버리영)



● 남계서원의달



● 일두선생을 읽다

3페이지 참조



금상

최은희



● 남계서원 앞에서

백두대간 끝자락에 옛 숨결 서린 서원(書院)  
바람 거센 역사 속에 드높인 임의 지절(志節)  
세월은 빛이 바래도 그 혼(魂)만은 찬연하리



● 일두 정여창 생각

잎 지고 시들어도 다시 피는 꽃이 있다  
화르르 날숨 불어 새날을 열어놓고  
세상을 구하려는가, 하늘 뜻 엿보던 이

유배지 변방인들 아무려면 또 어떠랴  
어린 새싹 불러 모아 우주를 가늠하던  
그 눈빛 파랗게 살아 지리산을 살찌운다

갈기를 휘날리며 밤 새워 달려온 길  
산 첩첩 물도 첩첩 함양 땅에 뿌리 내린  
그 선비 연꽃으로 피어 향기 오롯 전한다



금상

김선옥



● 일두 신도비

봄 한 밤 띄운 셋별 혜안을 밝힙니다  
난세를 빚낸 이름 후세를 밝힙니다  
청사에 살아 숨쉬는 대선비 삶 그림니다



● 일두 생가를 읽다

한 점의 수목화가 일두 생애 펼친다  
돌담길 버린 붓끝 매화축 부리면서  
올곧은 사표의 행적 성좌처럼 읽힌다

장엄한 솟을대문 홍살문 찍는 방점  
은 우주 품은 큰 산 햇살을 뿌린 자리  
우뚝 선 소나무처럼 한겨울을 지킨다

사랑채 이은 뜰새 숨결이 흐른 시혼  
호탕한 웃음소리 담장을 넘나든다  
후대를 적시는 묵향 불디불게 꽃핀다



금상

이정기



● 일두 선생

격량이 치던 시대 칼 보다 붓 들었지  
유배지 향로 밝혀 후학을 남긴 선비  
겹벚꽃 날리는 사월 공의 문향 기린다



● 일두 생가

솔향기 누빈 담장 넘나든 벌과 나비  
개평뜰 넘실대는 낭랑한 하늬바람  
솟을문 황금 벼 이삭 고개 숙여 맞는다

종갓집 잇는 인심 누마루 흘러넘쳐  
공의 발 능선 따라 공의 손 불러 모아  
은은한 음복의 향기 빗장 풀어 마신다

적요을 쓸어 담아 긴 밤을 걷어내듯  
소낙비 지난 자리 사랑채 땃돌 위에  
노을녘 물든 단풍이 묵향으로 번진다



은상

이은아



● 남계서원

봄별이 내려앉듯 매화꽃 맑은 학자  
연당에 홀로 앉아 수목화 놓는 자정  
풍영루 스며든 바람 일두 숨결 흐른다



● 일두 선생을 찾아서

달빛이 걷는 뜨락 겹벚꽃 피는 사월  
꽃비가 내린 카펫 개평길 들어서면  
오롯한 기품을 품은 일두 선생 맑은 솔

사랑채 솟을대문 엄숙함 배어난다  
선비의 꿈은 성품 우물 속 우러나고  
한지에 묻어난 음성 경서 읽는 그림자

영산홍 앵두꽃 핀 그리운 뜨락 너머  
목숨을 내려놓듯 백목련 옥쇄 행렬  
오백 년 세월을 담아 일두 생애 기린다







은상

박한규

## ● 남계서원 연지

가슴의 진흙 빗어 기와를 이워놓고  
처마 끝 맺힌 숨결 뜨겁게 피워내며  
혼으로 적바림했던 경전 펼쳐 보인다

## ● 일두시편(一蠹詩篇)

벌레로 몸 낮춰도 유허비는 세워지고  
사무친 백세청풍 홍살문에 솟구치며  
사당 앞 배롱나무도 꽃불로 타오른다

갑자년 광풍 앞에 부관참시 오욕이나  
통곡이 흥건하여 눈물은 강물 되고  
벽혈(碧血)로 넘쳐흘러서 번드쳐진 남계(濫溪)여

우러러 발원한 뉘 누마루 좌정하여  
충효를 품은 노송 절의를 버려놓고  
풍진에 떠도는 세상 휘감치며 꾸짖는다

승안산 돌아 앉아 상처를 꺾매는데  
혼불이 동살 되어 동방의 아침 여니  
해보다 빛난 사표가 사월 줄을 모른다



은상

왕나경

## ● 선비! 일두 선생

참선비 근본이 된 사람과 이끈 지주  
왕사가 된 대학자 정도를 가르쳤지  
도학을 두루 섭렵한 함양골의 수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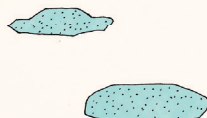
## ● 일두 생가에서

겉벚꽃 반겨주는 돌담길 생가 어디  
별 나비 날아드는 고택의 사랑 별채  
둥두렛 하얀 목련꽃 저리 깊게 피는가

창살문 문풍지는 적막을 끌어안고  
숨 쉬는 소리마저 아득히 들리는데  
절구통 흔적 앞에서 새소리가 정겹다

안채에 들어서서 목 향기 채워보듯  
영산홍 붉게 붉게 눈으로 마주하고  
정지에 불 지핀 저녁 가마솔이 익는다

굴뚝에 피어오른 허기를 뒤로 한 채  
잠자리 깃을 떨군 뜰 앞이 고요하다  
해맑은 달빛 앵두꽃 연못마저 건넌다



동상

심완 박전 상환

## ● 갑자사화(甲子士禍)를 보다

뜨겁다 마음 한 켠 뇌(腦) 속까지 저릿저릿  
통한(痛恨)의 흔적(痕迹)이여 함양(咸陽) 고을  
일두고택(一蠹古宅)  
지리산 떠나지 못한 정여창(鄭汝昌)의 혼(魂)이여

## ● 탁청재(濯淸齋)의 밤(부제: 主客問答說)

울 곧다 푸르구나 만세의 본(本) 충효절의  
정여창 선비정신 6백년 세월 넘어  
사랑채 누(樓)마루 아래 대죽(竹) 정원 석가산(石假山)

스스로 지은 호(號)가 한 마리 좀 벌레(一蠹)라  
큰 선비(大儒) 겸양지덕 몸소 실천(實踐) 자신 낮춰  
하심(下心)의 실사구시에 삼보 일 배 절했네.

달빛이 우물 속에 등실 등실 노니는 밤  
때 은 시간(時間)까지 떠나지 못 한 객(客)은  
갈증(渴症)의 목 달래려다 눈시울만 젖었네

우물 속 담긴 별빛 달빛이 곧 우주(宇宙)다.  
우주를 깨뜨려서 고요(靜寂)를 깨뜨려서  
내 욕심 어찌 채울꼬 애닦구나 그 마음(心)

알겠다. 내 알겠다. 안다, 안다 그 마음을  
아무리 수행(修行)하고 일두(一蠹)정신 공부해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탐진치(貪塵恥)가 시린 밤(夜)



## 5. 작품소개 - 수필

## 작은 幸福 &lt;수필집 '休講이 있는 曜日' 중에서&gt; 우청(又靑) 정병조(鄭炳祖)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행한 일이너무나 많다. 생일에 잘 먹으려고 사흘을 굶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재화를 쌓아 큰 영화를 누리려고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다가만 죽은 재산을 그 아들이나 손자가 주색잡기로 탕진하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공자는 『조문도(朝聞道)면 석사가의(夕死可矣)』라 하였지만 길을 닦고 길을 아는 일이 뼈를 깎는 고통일진대 단 몇 시간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 완성에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느낄 만한 큰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희생된 모든 작은 즐거움이 너무나 아쉬울 것만 같다. 길을 얻고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넓히고 인격을 완성함에 있어서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장수(長壽)를 누리고 헛된 부귀를 쌓기 위해서라.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저 산 너머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거기가 닿기만 하면 그지없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그러나 행복이란 그렇게 멀리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 닿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곳에 있으며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크고 그지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작고 한정된 즐거움인 것이다. 사실은 이런 작은 즐거움을 많이 모은 것이 곧 인생의 행복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백여덟 가지나 된다는 사람의 번뇌(煩惱)를 모두 욕망(欲望)의 탓으로 돌리고 이 모든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解脫)의 길이요, 법열(法悅), 곧 큰 즐거움을 얻는 길이라 한다. 그러나 법열의 경지는 멀리 범부(凡夫)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범부는 오히려 건전한 욕망을 가져야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가령 식욕을 잃은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작은 즐거움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흔히 고해(苦海)라고 하지만 작은 즐거움을 즐기려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실로 아낌없는 향연을 베풀어 준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즐거운 순간 셋을 손꼽아 보이지만 구태여 셋으로 인식할 필요가 어디 있으랴. 『가장』이라는 제한을 두는 것은 즐거움을 좁히는 부질 없는 짓이다. 사실 작은 즐거움은 그것을 느끼는 마음가짐이나 그때그때의 미묘한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어느 것이 더하고 어느 것이 덜한 분간이 없는 것이다. 그저 즐거우면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마음 맞는 친구가 불시에 찾아오면 어린애처럼 즐겁다. 선심을 쓴 아내가 두부찌개에 따끈한 술이라도 내다 주면 즐거움은 한층 더하다. 정신적으로 아무 부담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잔을 나누노라면 술이 떨어지는 것과 친구가 가려고 일어날 것만이 걱정스럽다. 이런 친구와는 교외나 고궁(古宮)을 거닐어도 좋고, 잔디밭에 뒹굴어도 좋고, 다방에 마주 앉아도 좋다. 친구에게서 얻는 즐거움은 인생의 즐거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베이컨은 『친구는 즐거움을 배가(倍加)하고 슬픔을 반감(半減)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친구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즐거움은 더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이 즐거움을 빼앗기운 지는 이미 오래구나.

즐거움에는 편지나 전화가 오는 반가움을 빼놓을 수 없다. 편지를 가령 비서(祕書) 같은 사람을 시켜 뜯어야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봉투를 뜯으면서 느끼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모를 테니까. 전화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간 친구가 자는 사람을 깨워서 혀 꼬부라진 주정을 늘어놓아도 마냥 즐겁기만 해서 껄껄 웃음이 나올 뿐이다.

대문을 벼락치듯 흔들고 『엄마!』를 요란스럽게 부르며 들어선 막내놈이 『수』를 받은 시험지를 앞에 내미는 것도 즐거움이요, 『수』를 약속하고 학교에 갔던 놈이 돌아와서도 시치미를 떼고 나가 노는 것이 수상쩍어 책가방을 뒤져 보면 교과서 사이에서 『미』를 맞은 시험지가 나오는 것 또한 미소를 자아내는 즐거움이다. 만원 버스 안에서 초등학교 어린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아주는 것 또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길가에서 어떤 군인이 인사를 하며 『선생님 제자입니다』 해서 그 명찰을 읽어 보면 어느 해의 출석부이든가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일 또한 즐거움이다.

양장이 몸에 맞고 용모가 단정한 여인을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듯 바라보는 것 또한 죄 없는 눈의 즐거움이다.

하루아침 창문을 열면 선뜻 가슴에 안기는 첫눈 내린 아침, 남의 집 처마 밑에서 피하는 소낙비,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 장미 송이, 온 뜰에 풍기는 라일락의 화사한 향기, 입술에 간지러운 달콤한 바람, 포도(鋪道) 위에 뒹구는 낙엽, 새벽인 줄 알고 문을 열어 보는 교교(皎皎)한 달밤, 때로 새벽 뜰에 와 앉곤 하는 이름 모를 새, 가을 벌레 우는 소리, 부서지는 파도, 드높은 포플라, 움트는 새싹, 강변의 저녁놀, 파사로운 양지쪽, 아득한 별들, 잎과 풀과 열매와 꽃, 산과 들과 시내와…… 대자연의 향연은 이렇듯 풍성하다. 자연이 주는 즐거움은 때와 곳을 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바로 거기 있다.



어찌 사람과 자연이 주는 즐거움뿐이라. 마음이 한가로우면 넉넉히 혼자 즐길 수 있다. 독서와 사색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왕국이다. 길을 걷거나 전차를 타고 때로는 혼자를 즐길 수 있다. 게으름을 즐기는 것 또한 빠지 못할 혼자를 즐기는 길이다. 혼자 있는 것이 괴롭지 않다는 사람은 혼자를 즐기는 길을 터득한 사람이요, 자기만의 왕국을 가진 사람이다.

즐거움이란, 따라서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상대성을 뚜렷하게 해보면 즐거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것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다. 나는 학생 시절에 야행군(夜行軍)이란 것을 해본 일이 있다. 군장(軍裝)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얼굴에는 먼지와 소금이 바삭바삭 만져졌으나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잠이 못 건디게 오는 일이었다. 그때 지나가는 길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불이 비치는 네모진 창문이 보였다. 나는 문득 그 불빛이 행복의 상징이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 방안에 저녁을 굶은 부부가 내일을 살아날 궁리에 밤 깊은 줄 모르고 수심에 잠겨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둠 속에 비치는 아득한 불빛, 그 안에는 편한 자세와 잠이 있을 테지 싶었다. 그때부터 나는 불 비치는 창문만 보면 곧 행복을 연상하는 묘한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 집 앞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내 방 창문을 보고 행복을 연상해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공산치하(共産治下)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마저 빼앗기는 고통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아무의 눈에도 거슬리지 않고 살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는 데는 질색이었다. 그때 이래로 나는 아무 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란 정말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유를 다시 얻고 얼마 동안 몸이 저리도록 그것을 느꼈고 즐겼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그럴 뿐 느낌은 그다지 절실한 것은 아니다.

가령 나는 이발하고 난 뒤에 개운함은 좋아하지만, 하는 동안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아무래도 제 몸을 마음대로 못 놀리는 데 있는 것 같다. 앉아 있고 싶은 데도 누워야 하고, 가려운 데를 긁지도 못하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바른쪽으로 돌리고 있어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이발이 끝나면 팔을 휘두르고 고개를 몇 번 좌우로 돌려 보면서 해방감(解放感)을 즐긴다.

그러니 고통스러웠던 모든 경험은 현재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란

흔히 너무 교훈적인 뜻으로만 쓰이고 현재고(現在苦)를 무한정 강요하는 데만 쓰이지만 『단맛을 즐기기 위하여는 쓴맛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느니라』고 나대로는 생각한다.

이제부터 허깨비 같은 큰 행복을 쫓아 허둥거리는 어리석음은 버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는 작은 즐거움을 조용히 맛보며 살린다. 첫눈이 내리려는지 날도 음산하게 춥고 하니 너비 아비를 맛있게 굶는 선물집에 대포라도 하러 갈거나.

## 함양이 낳은 수필가 우청(又靑) 정병조(鄭炳祖)

우청(又靑) 정병조(鄭炳祖)는 1922.10.18.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에서 출생하여 1997.5.4. 사망한 번역문학자이자 영문학자이며 수필가이다(일두 종손 의균의 숙부).

중앙중학을 거쳐 1943년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學) 영문과와 195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문과를 수료하였으며 성균관대 조교수, 서울대 사대교수, 서울대 대학신문 편집국장, 공보부 차관(1963~1964)을 지냈으며, 숙명여대 교수, 성균관대 영문과 교수로 1988년 정년퇴임 후 1997년까지 명예교수로 있었다. 안양고등학교 교장, 1967년 영어영문학회장, 1970년 성균관대 문과대학장·동 유학대학장 겸임. 1973년 동 박물관장 겸 도서관장, 1983년 심산사상연구회장을 지냈으며, 1984년엔 명예문학박사(한양대)를 받았고, 1986년 성균관대 대학원장(~1988)을 했으며, 영어영문학학회장으로 국제펜한국본부·한국미학회·번역가 협회 등에도 관여했다.

수필가로서는 1963년 처녀수필집 《休講이 있는 曜日》(동화출판공사)을 냈고, 1988년에 두 번째 수필집 《그래도 아름다운》(1988.범우사)을 냈다.번역문학가로서 하디의 운명의 장난》《귀향(歸郷)》《테스를 번역했으며, 헤밍웨이의 《여자 없는 세계》《무기여 잘 있거라》《아프리카의 푸른 언덕》과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 모옴의 《면도날》, 맨스필드의 《원유회(園遊會)》, 허슬리의 《천재와 여신(女神)》,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葡萄)》, 라이트의 《블랙 보이》, 포스터의 《소설의 양상(樣相)》 등을 번역하여 한국 번역문학에 큰 공헌을 했다.

그 외에도 《영국소설사》《영한대사전》(공저)과 《영미문학입문》(공저)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